

# 삼성증권 주식회사

중장기 사업방향

- 최근 주요 변화 -

2017년  
삼성증권 IR

신뢰에 가치로 답하다

삼성증권



# 목차

최근 Progress

영업환경 및 업계 동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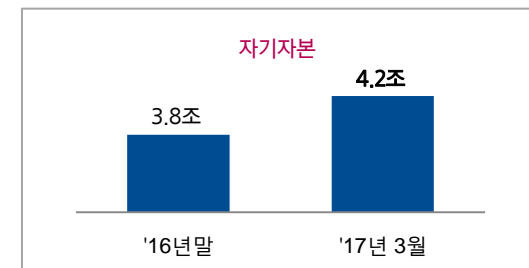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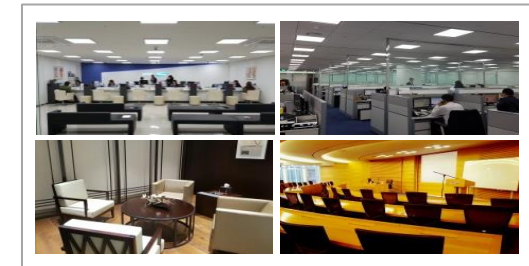
중장기 전략 방향

리스크관리

# 최근 Progress

## 삼성증권은 '16년 말 이후...

- 삼성 금융계열사 시너지  
'16년 12월, 서초사옥으로 본사 이전 → 매각 루머 종식
- 업계 Leadership  
'16년 12월, 업계 최초 초대형 금융센터 도입 → One-stop 서비스 강화  
- 강북금융센터, 강남금융센터, 서초삼성타운 3곳 설립
- Global Coverage  
'17년 3월, 베트남 HSC 증권 제휴 → 해외 성장시장 직접투자 기회 제공  
- 중국 중신증권 ('15년), 대만 KGI ('16년)
- 초대형 IB  
'17년 3월, 자기자본 4조원으로 확대 → 초대형 IB 사업 기반 마련  
- 3월 27일 신주 상장 (1,286만주, 발행가 26,300원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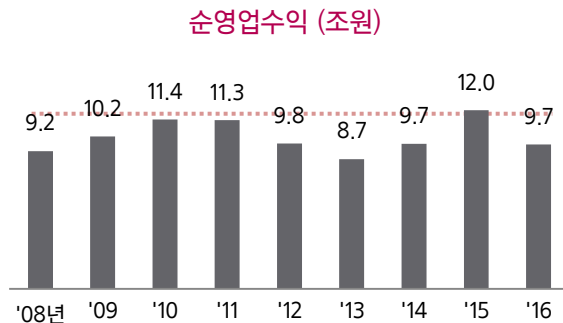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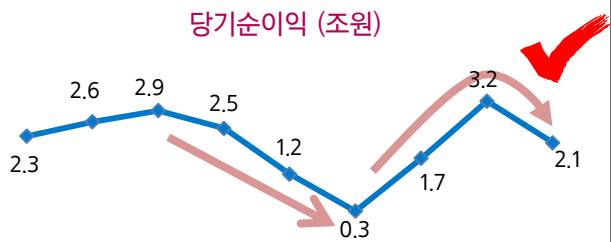
# 영업환경 및 업계 동향

증권업계의 패러다임 변화가 지속되는 가운데, 몸집을 불리거나 타업종 진출 증권사 증가

## [ 증권 업계 실적 ]

### ▶ 구조적인 (Structural) 어려움 지속

- '13년 이후 개선되던 수익은 불과 2년 만에 거래대금 감소, 경쟁심화 등으로 다시 축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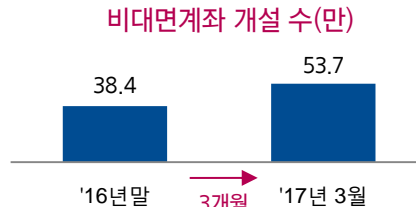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통계정보시스템, 삼성증권

## [ 주요 시장 트렌드 ]

### ▶ 디지털화 확산

- 로보 어드바이저리 도입, AI·블록체인
- 비대면계좌 개설 증가 가속화 ('16.3월 허용)



\* 주: 삼성증권, 주요 5개사 누적 합계

### ▶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


- 유럽 주요국 선거, 美 보호주의, 中 성장 둔화 등 지정학적 리스크 증가
- 美 금리인상, 유럽 양적완화 축소 등

### ▶ Active 에서 Passive 투자로

- ETF, 인덱스 투자 확대
- \* '16년 美 주식형 액티브펀드 순유출 역대 최대 규모 \* 약 2,880억 달러

## [ 업계 동향 ]

### ▶ 대형화

- 인수합병을 통한 몸집 불리기(초대형사)
- 미래 + 대우 ⇒  미래에셋대우 (지점 최다: 169개, 인력 최다: 4,818명)

### ▶ 사업 다각화

- 인터넷뱅킹 진출, 저축은행·운용사 인수
- NH(K뱅크), 한투(카카오뱅크)
- 키움(티에스저축은행), 대신 (현대자산운용)

### ▶ Agency → Capital Injection 중심으로 사업 전환

- 해외 부동산 등 대체투자, 벤처투자
- 미래대우 (3,500억원 규모의 신성장펀드 조성)
- 유상증자를 통한 자기자본 확충
- 신한 ('16.7월, 2.5 조 → 3 조)
- 한투 ('16.11월, 3.4 조 → 4.1 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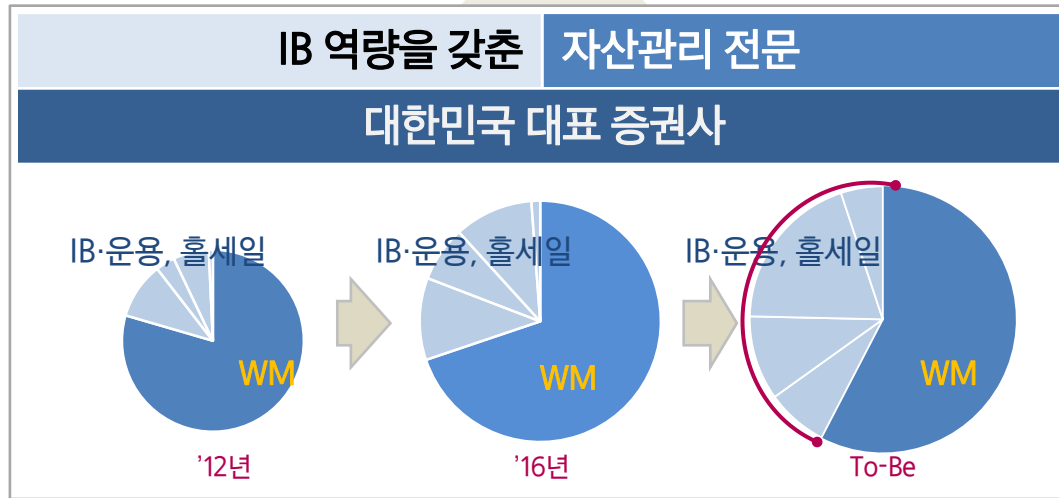
# 중장기 전략 방향

삼성증권은 단순히 규모를 키우기 보다는 수익성, 안정성, 효율성 기반의 성장을 추진하며 실행력(Execution)에 초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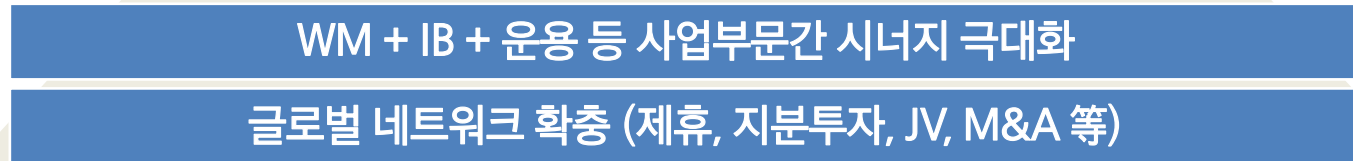
Guiding Principle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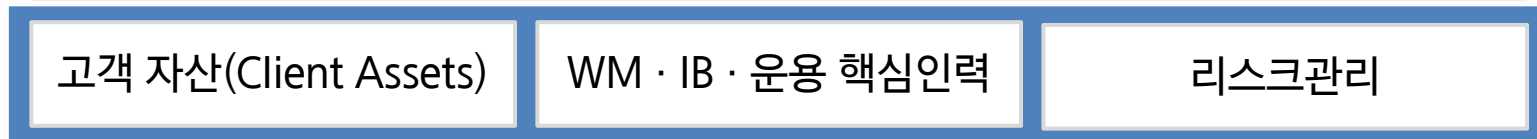
지향하는 모습



Driver



핵심역량



# 중장기 전략 방향 : WM - IB 시너지 강화

IB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확충하고, WM과 IB부문 시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·보상 체계 개편

## [ 조직 및 인력 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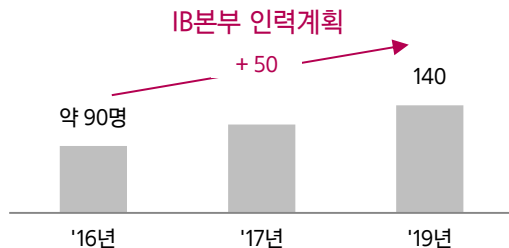
### ▶ 커버리지 전문화 및 IPO 부문 강화를 위해 팀 신설

- 바이오, TMT, 소비재 등 신경제 섹터 강화



### ▶ IPO, 투자금융 중심으로 IB 인력 확충

- 3월말 기준 9명 확보 \* 임직원 추천제도 시행



### ▶ IB인력 ⇒ WM센터 파견, 쏠지역으로 확대

## [ 평가 및 보상 체계 ]

### ▶ WM지점 및 IB본부 KPI에 시너지 항목 반영

WM 지점 : IPO Mandate 건수 등

IB 본부 : 대체상품 공급 규모 등

### ▶ Finder's Fee 등 인센티브 강화

- IB딜 소개 시 기여매출 지급율 확대
- 부유층 WM고객 소개 시 발생 매출의 일정부분 지급, 고객당 포상금 지급



### ▶ IB, 업계 우수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 체계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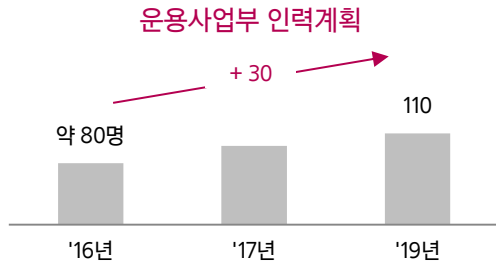
# 중장기 전략 방향 : WM - 홀세일·운용 시너지 강화

운용은 상품 다양화 및 영업연계 중심의 직접투자 확대 등을 통해 WM 및 홀세일에 대한 상품공급 강화

## [ 조직 및 인력 ]

### ▶ 채권운용 및 Equity·FICC 파생운용 중심 인력 확대

- 3월말 기준 9명 확보



### ▶ 맞춤형 상품 공급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

- 세일즈 및 트레이딩의 협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



### ▶ 판매채널 다각화를 위한 FICC사업부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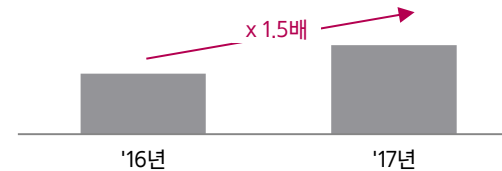
## [ 운용상품 다각화 및 시너지 투자 확대 ]

### ▶ 리테일 해외채권 : 브라질/KP物 →

#### 해외 국채 및 우량 회사채로 취급 상품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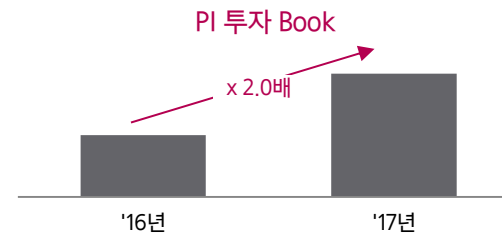
- 법인·부유층 고객 대상 판매 확대
- GE, Apple, HSBC 등 우량 해외 회사채 판매

해외채권 판매 규모



### ▶ PI : 헤지 목적 투자 →

#### 영업연계 시너지 투자 등으로 투자 확대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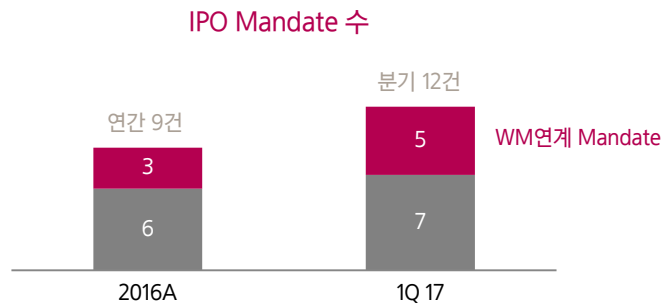


# 중장기 전략 방향 : 시너지 기반 최근 성과

IB부문에서 시너지 기반 IPO 및 부동산 등 대체투자 증가 및 운용부문에서 OTC M/S 및 발행 물량 증가 지속

## [ IB부문 성과 ]

### ▶ WM-IB 연계 영업으로 신규 IPO Mandate 대폭 증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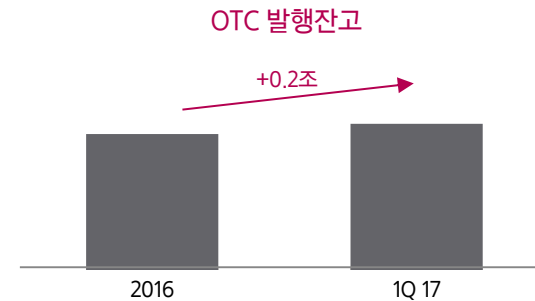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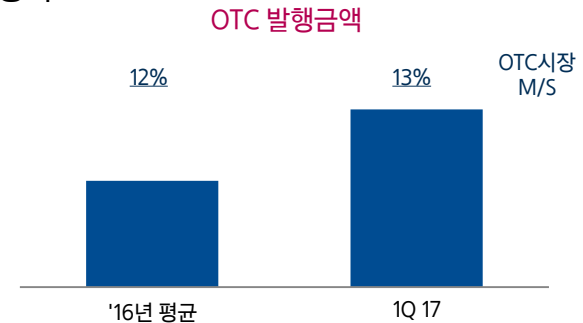
### ▶ 부동산 등 대체투자 및 인수금융 증가



## [ 운용부문 성과 ]

### ▶ 1분기 ELS 및 DLS 발행액 전체 시장의 13%로 상승

- 1분기 발행금액은 3조 이상으로 '16년 분기 평균 대비 67% 증가



# 중장기 전략 방향 : Wealth Manage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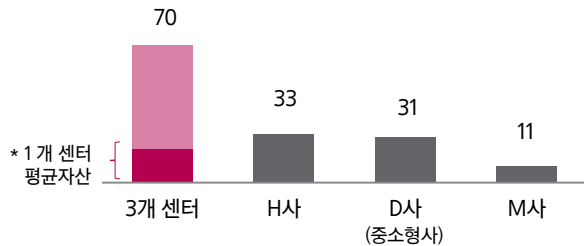
초대형점포 정착 및 상품 서비스 차별화를 통해 고객기반 확대, 부유층 중심의 리테일 고객기반은 전분기 대비 확대

## [ 초대형점포 정착 ]

### ▶ 초대형 점포 ⇒ 효율성 · 서비스 Quality ↑

- 임원급 센터장, PB 50~60명, WM·법인영업 센터별 관리자산 약 20조
- 포럼 마케팅 월 1회(VIP 대상), 소규모 세미나 활성화(Affinity Group)
- 우수인력 집중 배치 → 상호경쟁 및 노하우 공유

초대형점포 관리자산 비교 (조원)



### ▶ 팀제 영업을 통한 One-stop 서비스 강화

- WM + 법인영업 ⇒ '규모의 경제' 달성  
⇒ 기업오너 Target 경쟁력 ↑

## [ 상품 및 서비스 차별화 ]

### ▶ 고객 특성별 상품라인업 확충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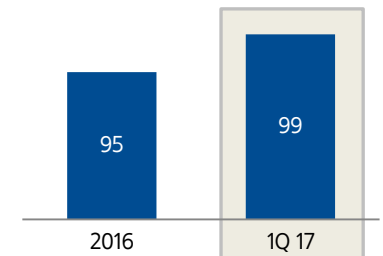
- 증여신탁, SNI 전용 상품 (아트 등)
- 헤지/대체투자 등
- 공모 ELS 등

### ▶ 글로벌 상품 및 솔루션 제공 확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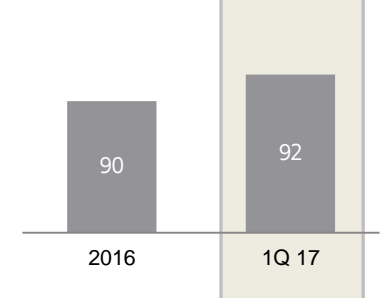
- 해외 특화 상품 : EdR 글로벌 데이터 등
- 해외주식 Coverage 확대  
· '17년 3월 베트남 주식중개 개시
- 제휴 확대  
· 유럽(협의중), 일본(협의중), 미국(TBD)

## [ 고객 기반 ]

개인고객 자산 (조원)



HNWI 고객 (천명)



# 리스크 관리

제도 개편 및 자본확충으로 운용여력이 확대되어 추가적인 Buffer를 활용한 보다 적극적인 운용 가능

## [ NCR관련 규제변화 ]

- ▶ 14년말 新NCR 도입, '16년부터 시행
  - (영업용순자본-총위험액)/필요유지자기자본
- ▶ 장외파생 상품 영위 기준에 대해 구NCR 200%에서 新NCR 150%로 변경('17.3월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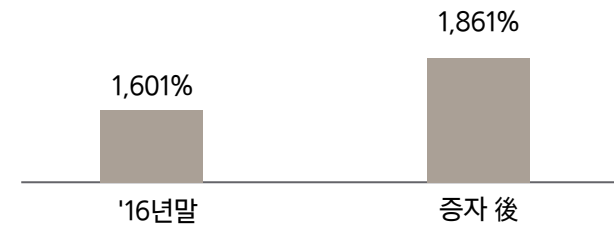
NCR 제도 변경 내용

	적기시정조치 (경영개선)			장외파생상품 업무제한
	명령	요구	권고	
新NCR	0% ↓	50% ↓	100% ↓	150% ↓時
舊NCR	100% ↓	120% ↓	150% ↓	200% ↓時

- ▶ 1년 이상 기업대출에 대해 자본차감이 아닌 위험액 차감방식 적용도 추진 중 (新 NCR II)

## [ 유상증자에 따른 규제 비율 변화 ]

### ▶ 新NCR 비율



⇒ 기업대출 추가 여력: 약 2.2조 (증자 효과 0.3조)

### ▶ 레버리지 비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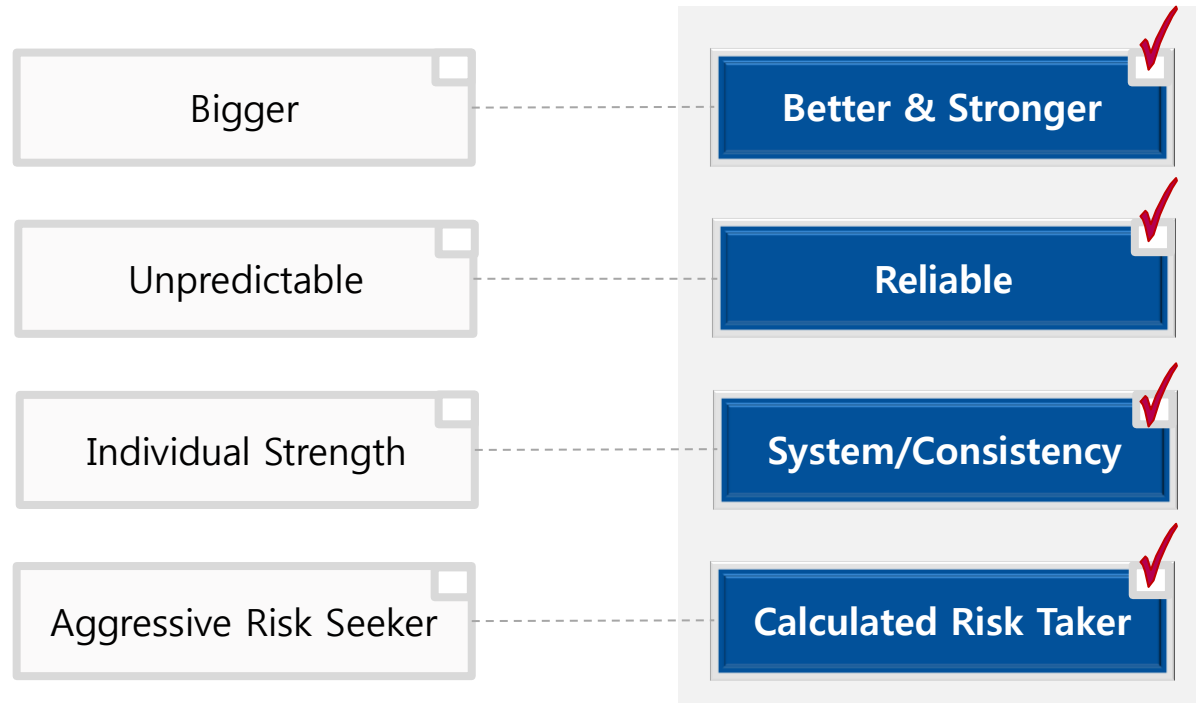


⇒ 기업대출 추가 여력: 16.4조 (증자 효과 3조)

## Key Takeaway...

---

삼성증권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꾸준한 실행에 역량을 집중



## Disclaimer

---

본 프리젠테이션에는 삼성증권의 경영실적과 함께 향후 경제 환경의 변화, 증권산업의 전망, 삼성증권의 향후 목표와 전략 등 미래 지향적인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이러한 내용들은 현시점에서는 예측이 불가능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으며, 따라서 미래 경제 상황이나 경영 실적은 본 프리젠테이션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.

삼성증권은 본 프리젠테이션 내용 중 미래 지향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수정, 보완할 책임이 없습니다.